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대단원

제15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 익산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폐막 당일인 4일까지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64만명의 관람객들로 대성황을 이룬 채 막을 내렸다.

올해 국화축제는 전국을 대표하는 국화축제답게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전국 각지서 64만명 몰려와 평가됐다. 특히 축제 소득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특별전시장 유료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농특산물 등에 대한 판매부스 확대는 농가 소득증대에 기대 이상으로 기여하면서 생산적인 축제로 치러졌다는 평가다. 또한 그간의 전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새롭게 변신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포토존 확대도 관람객으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어냈

고, 백제 왕도를 상징하는 20m크기의 백제왕도문 및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유적으로 손꼽히는 왕궁리5층석탑 등 화려한 국화작품 역시 대거 전시되면서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또 전국적인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부 관광객들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단체 관광객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북새통을 이뤘고, 20~30대 젊

은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 익산만의 지역축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특히 사람의 상징 하트게이트와 익산 보석의 상징 보석게이트, 2019년 기해년 새해 소원을 나비에 적어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며 만든 소망풍선 전광대, 두 마리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쌍용게이트 등에서는 가족, 연인 단위 관람객들이 사진 찍기에 바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예산 확보에 구슬땀

강임준 군산시장, 국회 방문 지역경제 회생토록 지원 호소

강임준 군산시장이 국회예산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회를 방문한 강시장은 국회 주요 상임위 소관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위기상황을 성토했으며 IMF보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견디고 있는 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강임준 시장은 국회 국토위, 행안위, 산지중기위, 농해수위 등 각 상임위 예산 소위위원을 방문해 군산시의 주요사업이 2019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국토교통위 박홍근 의원을 찾아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입대용지 조성 사업과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행정안전위 소속 소병훈 의원을 만나 시 역점사업인 군산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요청과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산지중기위 백재현 의원을 방문해 소상공인 스마트저온(냉장·냉동)창고 건립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으며 농해수위 소속 박주현, 정운천 의원을 만나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장 구축지원 사업과 수제 맥주·청주 특화거리 조성사업, 어청도 노후여객선 고속차도선 대



강임준 군산시장 지역경제 위기 극복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건조 등 5개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인 김광영 의원에게는 시의 전반적인 주요사업에 대한 국회 동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면서 군산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주요사업 증액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전북지역 의원들과 공조해

소속 정당 차원의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 마지막 심의단계까지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모든 역할을 결집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세균성 바이러스 SFTS 감염 주의

군산시보건소, "야외활동 후 의심증상시 즉시 치료받아야"

최근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경우 특별한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 진단과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염대 보건소장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의심증상이 발견될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란다" 거듭 강조했다.

보건소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예방을 위해 지난 8월 주요등산로와 공원산책로 4개소에 진드기 기피제를 살포했으며, 예방 수칙 리플릿 제작 및 기피제를 추가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5일 시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정현을 익산시장, 시정추진사업 공유

정현을 익산시장은 5일 오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각종 시정추진사항과 관련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모든 간부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각종 시정추진사항과 방향을 전 직원에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 익산시민들까지 파악되리라 기대한다"며 설명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 시장은 2018 전국(장애인)체전과 2018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성공개최에 애써준 익산 시민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사에 대한 꼼꼼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개선할 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진행하면서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없애고, 중요하지 않은 행사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간부회의에서 지역맞춤형 인

구정책, 친절행정, 국가예산 확보대책 등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정책의 추진은 익산의 존폐를 결정짓는 절박한 과제이다. 직원들과 시민들이 모두 동참해 인구늘리기에 사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친절행정 추진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못하는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 상을 주려는 것"이라며 "전 직원이 친절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행사들이 모두 끝난 만큼 앞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7일 예정된 간부 회의는 서울 사무소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익산시 전 간부가 참여하는 주요현안과 시책을 청취하고 현안사업과 정책을 공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팔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5일 국회를 방문, 정운천 예결위원과 정동영, 윤영일 의원, 김수홍 국회사무처장 및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사

업인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102억),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광공천 하천 정비사업(71억),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과 공정개선을 위한 △하수처리기 감량화 사업(70억),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등의 내년 국가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보건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형태)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취약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현재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의료기관이 없는 5개 도서(말도, 방축도, 명도, 두리도)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사업 영역을 넓혀 경로

당 65개소를 선정해 월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읍·면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방·내과 진료를 실시해 3,743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5개 무의도서 마을주민(4,632명)을 대상으로 한방·내과진료 및 증상별 투약, 계절별 건강관리와 의약품제공에 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행정위원회,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구)에서는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일 익산 CCTV 통합관제센터를 현장 방문해 현황보고 및 시설점검에 나서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범지대에 설치된 1,400여대의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긴급 상황에 신

속히 대응하며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 파수꾼이 되어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CCTV의 수를 늘리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가족 참여 도담도담 문화체험 성료

행복도시 군산시는 아동과 가족들 40여명은 지난 2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외안 민속마을과 파라다이스 도고를 방문해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시 드림스타트에서 주관한 '도담도담 문화체험' 행사는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유아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인지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정은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